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9월 8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6장 13절

설교제목 :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 강해 마지막 시간인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만’으로 번역된 ‘알라’는 앞선 내용보다 점층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해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지 마시옵고, 더 나아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란 의미가 됩니다. 더불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한데, ‘악’으로 번역된 ‘투 포네루’란 헬라어는 ‘중성’으로 볼 수도 있고, ‘남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성으로 보면, 악이란 추상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악이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입니다. 반면 악을 남성으로 보면, 악한 자가 됩니다. 즉 사탄이 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본문에서 악이란 사탄이란 구체적인 존재를 가리키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든 것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사탄에 대한 존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탄의 존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무시해서도, 과대평가해서도 안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탄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의 기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단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서 사탄의 기원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였습니다. 천상의 창조물입니다. 사탄은 매우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였습니다. 다른 천상의 존재들이 그를 흠모할만한 존재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텄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하늘의 영들 즉 다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실제적인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은 살아있는 악한 인격체입니다.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탄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설명하면, 사탄은 **파멸시키는 자, 형제를 고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빛의 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가치한 자, 마귀, 원수, 이 세상의 신, 사망의 왕,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울부짖는 사자, 어둠의 자녀, 시험하는 자, 도둑, 사악한 자**라고 합니다. 이름만 살펴보다라도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탄의 이름은 그가 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공격하여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소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울무를 놓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악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흠쳐잡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자를 속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반드시 사탄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엡6:14-18)**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히 이 시대와 연관해서, 진리와 의의 무장이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아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진리와 의의 삶입니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에서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송영인데, 이것은 신앙의 유익을 위해 교회가 덧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송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대개(大蓋)란 말은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보건대’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헬라어가 ‘호티’인데, 호티의 뜻이 왜냐하면입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란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의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고후10:3-4)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릴 수 있는 힘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힘써 이야기 합니다. **엡6:10-11**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때까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 ※.말씀 살펴보기

- 1)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악’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 2)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이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봅시다.

####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